

전주시, 아파트공동체사업 본격 시동

사업설명회 개최· '주민 욕구조사'... 참여 희망 주민 10인 이상 22~23일 사업계획서 제출

전주시가 공동주택 입주주민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시는 8일 완산구청 강당에서 오전과 오후 2회에 걸쳐 총 20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공동체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주형 공동체 육성사업인 온누리공동체 활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김창환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국장의 '공동체에 대한 교육'과 '전주시 공동체사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또, 박경희 전주시 공동체육성과의 아파트공동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특히, 시는 이번 아파트공동체 사업 설명회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에 그치지 않기로 참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입주민 욕구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향후 아파트공동체 사업의 정책마련과 사업발굴에도 매진할 계획이다.

시는 9일에는 덕진구청 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오전 10시와 오후 3시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평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점차적으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동체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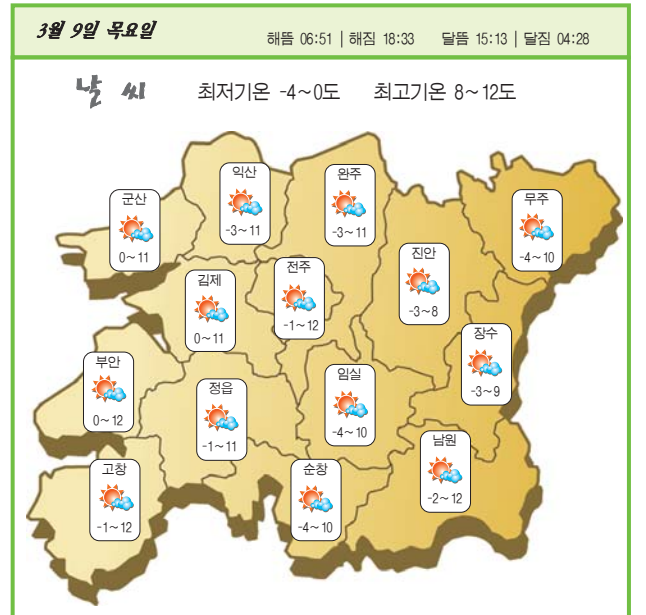
실험동물 폐조직 샘플 설명 듣는 최양희 장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8일 정읍시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육육안전성연구본부를 방문해 설치류부검실에서 조재우 박사(검정색 상의)로부터 실험동물 폐조직 샘플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을 확대시킬 계획"이라며 "아파트공동체를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전주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전주시 공동체육성과에 사업계획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U-20월드컵 성공개최 자신

FIFA 개최도시 최종 실사 진행

FIFA U-20월드컵 개최를 위한 최종 관문인 FIFA(국제축구연맹)의 마지막 개최도시 실사가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등 전주시 일원에서 진행된 가운데, 전주시가 대회 성공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리아는 마틴(Rhianon Martin) U-20월드컵 대회운영 총괄담당관을 비롯한 FIFA 실사단과 대회 조직위 관계자 등 31명은 대회 개막전이 열리는 전주 월드컵경기장과 훈련장, 숙박 등 대회 관련 시설 전반에 걸쳐 실사를 진행했다.

이번 실사는 이벤트 총괄, 경기, 의전, 안전, 마케팅, 티켓팅, TV, 숙박, 비디오 실관, 홍보 등 10개로, FIFA 실사단은 지난해 6월 2차 실사 때의 사항들 중심으로 대회 개최에

필요한 시설들을 상세히 둘러봤다.

전주시는 이번 실사에 대비해 U-20월드컵추진단을 중심으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분야별 대응반을 구성하고, 실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

특히, 시는 개막전 개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전광판과 잔디 교체 등 7개 분야 1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 훈련장 1개소를 신설하고, 경기장 진·출입로 개선 사업도 진행해 오고 있다.

경기장 등 대회개최를 위한 주요 시설개선사업들은 오는 4월 대부분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오는 5월 20일 대회 개막전을 찾는 많은 축구팬들에게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학생인권의 날 '공모전' 20일~내달 10일까지

전북도교육청이 내달 2일 학생인권의 날을 앞두고 기념 공모전을 추진한다. 학생인권의 날은 올해로 5회째를 맞는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의 날을 기념하는 공모전을 내내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추진한다.

학생인권 증진을 주제로 하는 내용이며 UCC, 그림, 사진, 캐릭터 등 4개 분야가 있다. 또 내달 각각 학교에 부착할 학생인권조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다음달 8일에는 기념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학생참여위원회 주관으로 학생인권조례 골든벨도 진행한다. /정혜은 기자

전주시, 어르신 8371명에게 일자리 제공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소양교육... 4개 분야 116개 사업 시행

전주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8,3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기로 했다.

시는 올해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공익활동형(4,217명) △공동작업·제조판매(383명) △점점서비스형(378명) △인력파견형(600명) 등 4개 분야 116개 사업을 통해 지난해보다 300여명 늘어난 8,37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은 거리환경개선사업과 지역아동연계사업,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강사파견, 거동불편 노인을 돌봐주는 노-노케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공익활동의 경우 1일 3시간 이내(월 30시간)로 주 2~3회 활동하며, 월 22만원의 활동비를 받으며 오는 11월까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취업·창업형 및 인력파견형은 사업운영 수익률 및 고용된 기업의 근로대가에 따라 정해진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노인사회활동 참여 어르신 945명과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전주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발대식과 소양교육을 가졌다.

전주시노인복지관련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업 참여자의 결속력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자부

심과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참석한 어르신들은 결의를 다짐하는 합한 구호와 선서문을 낭독했다. 또, '100세 시대 건강관리'와 '시대를 초월한 지도자, 세종'을 주제로 한 교육도 진행됐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동년배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소통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삶의 활력을 불러 일으켜 즐겁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일자리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살기 편안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마을발전계획 수립동·실행동 모집

전주시가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계획 수립과 실행을 통해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2017년도 원도심 지역공동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사업'의 마을발전계획 수립동과 계획 실행동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주시 원도심 12개동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주거지 쇠퇴 등 지역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어르신, 총 7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알고 있는 주민들이 직접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원도심 동은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회의록, 참여자 서명부 등을 갖춰 전주시 공동체육성부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시는 향후 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주민주도 활성화계획을 수립된 2개 동과 앞서 마을계획이 수립된 4개 동 중 계획을 추진하고 실행할 2개 동을 각각 선정, 총 7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국립예술도시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살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